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6

8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소통-코스모스(72.7x50) • 이가은

* 이가은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6 / 8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장마철 이야기
꽃은 흠에서 핀다	09	상사화
일요특강	13	무소유와 생태운동 ①
따뜻한 이야기	18	용서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20	나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23	인연
아름다운 마무리	26	위험한 홀로 서기
운명보다 강한 열정	28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 서진규 박사
숨어서 피는 꽃	30	"아니오"보다 못한 "예"
좋은 글 나눔터	34	올림픽이 열리는 동네
옛날의 금잔디	38	장군(將軍)과 군중(群衆)
향기나는 우체통	43	人間이 살아가는 길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6년 8월 1일 발행 / 통권 258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장마철 이야기

글·법 정(法 頂)

일 년 열두 달,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서 무더운 여름철을 나는 좋아할 수가 없다. 눅눅한 습기와 시루 속 같은 더위에 모기와 벌레 등 물 것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고온 다습한 기후 덕에 벼농사가 제대로 되는 이득이 있는 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선 끈적거리는 그 무더위가 팔팔한 내 성미에 맞지 않는다.

추울 때는 군불을 많이 지피고 속 옷을 꺼입으면 되는데, 무더운 여름철에는 벗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벗어도 땀은 흘러야 하고 물 것은 더욱 좋아라며 달라붙는다.

이런 더위에 지지 않고 이기려면 더위를 피할 게 아니라 그 더위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 더위 자체가 되어 일에 몰입하게 되면 더위가 미칠 수 없다.

옛 선사들의 가르침에도 있듯이, 더울 때는 더위 그 자체가 되고 추울 때는 추위 그 자체가 되어야, 더위와 추위에서 함께 벗어날 수 있다.

비가 많이 내릴 듯한 날에는 이른 아침에 미리 군불을 두둑이 지퍼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군불을 지퍼두면 낮 동안 발을 드리운 방 안에서 속옷바람으로 흥가분하게 고실고실 쾌적한 상태에서 일에 몰입할 수 있어서 좋다. 둘째는 비가 많이 내리면 아궁이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미리 보온을 해두려는 배려에서다.

옛 집터에서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터를 돋우어 지어야 한다는데, 산거(山居)를 마련할 무렵의 내게는 그

런 예비지식이 없어 일꾼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었더니, 폭우가 내리면 그때마다 아궁이에서 물이 났다. 높은 산중에는 폭우가 장시간 쏟아지면 여기저기서 생수가 터진다. 터를 돋우지 않고 깎아내면 그 생수의 물 길은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평지보다 낮은 아궁이에 물이 고이게 마련이다.

처음에는 멍모르고 물이 괴는 족족 퍼냈더니 물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괴었다. 자다가도 걱정이 되어 몇 차례씩 깨어나 부엌에 들어가 물을 몇동이씩 퍼내곤 했다. 그대로 두면 아궁이 속 고래에까지 물이 넘칠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그건 부질없는 짓임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괴는 족족 물을 퍼내면 도리어 물길이 트여 끊임없이 물이 끈다. 그런데 물이 괴면 그 물량에 따라 압력, 즉 수압(水壓)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량을 넘으면 그 이상 더 차오르지 않는다는 사실도 뒤늦게 터득했다. 물리시간에 배워서 알만한 일인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실생활에서 몸소 부딪혀 겪음으로써 비로소 산 지식이 된 것이다.

이런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집 둘레를 깊이 파 물이 흘러갈 수로를 마련하는 공사를 몇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서너 자 깊이 파 들어가면 압박이 나와 손연장으로서는 더 깊이 팔 수가 없었다. 그래 요즘에는 장마철의 연중행사로 알고 둘레의 상황에 묵묵히 순응하고 있다. 제방이 무너져 사람이 죽고 가재도구를 떠내려 보내야 하는 그런 수재에 비하면, 아궁이에 끈 물 좀 퍼내는 일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 곱마운 일은 굴뚝 위에 올려놓은 환풍기가 있어, 그 어떤 날씨에도 아궁이에 불이 잘 들인다. 높은 산중에서는 기압과 골짜기의 기류 때문에 안개가 짙게 끼거나 구름이 낮게 뜬 여름철에는 불이 잘 들이지 않고 내는 수가 많다. 이 산중에 들어와 살면서 여름철이면 번번이 연기가 아궁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눈물을 많이 흘렸

다. 불이 잘 안 들일 때 평지 같으면 굴뚝을 높이면 연기를 잘 빨아올리지만, 산중에서는 바람을 타기 때문에 굴뚝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덜 들인다는 사실도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러다가, 굴뚝에 다는 환풍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걸 사다가 사용한 뒤부터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 불 내는 바람이 불어 이 환풍기를 쓸 때마다, 나는 이런 기구를 발명한 사람에게 무슨 상이라도 드리고 싶은 고마운 심정이다. '문명의 이기'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구나 싶다.

산천경계의 걸모습만 보고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한가하게 새소리나 듣고 부드러운 앞산의 산마루나 바라보면서 맑음과 고요를 즐기는 듯한 산중생활을 부러워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한가와 고요와 맑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상을 치른다는 사실을 알거나 하는지. 그래서 세상에는 공것도 없고 거저 되는 일도 없다. 그 어떤 형태의 삶이건 간에 그 삶의 차지만큼 치러야 할 몫이

있는 법이다.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치러야 할 그 몫도 또한 크고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장마철 빨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며칠씩 잔뜩 찌푸린 채 찢절거리다가도 하루쯤 반짝 햇별이 나는 때가 있다. 말하자면 장마철의 '작전타임'인 셈이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땀에 절어 벗어놓은 옷가지를 빨아야 한다. 혹은 비가 새는 지붕이 있으면 이때를 기해 고쳐야 하고, 수채며 축대의 손질도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장마철에는 습기가 많고 햇살이 엷기 때문에 빨랫줄에 널어놓아도 잘 마르지 않는다. 건조실이 따로 없는 내 처지에는 아랫목 침상 밑에 펼쳐두고 하룻밤을 재우면 잘 마른다.

대로 엮은 침상은 암자를 지을 때 쓰고 남은 재목으로 틀을 짜고, 대밭에서 베어낸 통대를 쪼개어 만든 것이다. 대 마디를 정미롭게 손질하지 못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피하지방이 별로 없는 내 몸에는 딱딱하고

배기지만 지압삼아 여름철이면 대침상을 방안에 들여놓고 쓴다. 아궁이에 물이 괴어 며칠 동안 균불을 지피지 않더라도 침상에 누우면 눅눅하지 않아서 좋다. 그리고 침상에서 자면 방바닥에서 잘 때보다 일어날 때 훨씬 몸이 가볍고 개운하다.

이건 공연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내가 살 만큼 살다가 목숨이 다해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게 될 때 침상째 들어가 불태워버리면 일거리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한 번 이 육신에 대한 증거인멸의 의식을 치러야 할 테니까.

평생에 쓰이던 침상이 그 주인을 잃고 난 후 여기저기 뒹굴면서 거추장스런 물건이 되기보다는 함께 불에 타 재로 소멸되는 쪽이 나을 것이다. 한 번 만났던 것과는 언젠가 반드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인연을 우리는 이 세상에 몸받을 때부터 안고 있다.

빛속에 태산목 꽃이 피었다가 지곤 한다. 그저께 아침 피어난 상아

빛 꽃송이가 그날 저녁 무렵에는 으르러더니 어제는 그대로 열린 채 밤을 맞이했다. 오늘 종일 비를 맞으면서 마지막 향기를 내뿜고 있다. 내일이면 빛도 바래고 향기도 사라질 것이다. 덧없는 꽃이여, 목숨이여!

인도의 옛도시 바라나시로 공부하러 간 한 후배한테서 오늘 편지가 왔다.

45도의 더위, 그리고 모기 떼들, 자칫 눈물이나올 것 같은 견디기 어려운 열기 속에 너무도 한국이 그리워집니다. 언젠가는 차가운 얼음물에 몸을 한번 담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고, 다섯 잔의 냉커피를 단숨에 들이킨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또다시 한밤중의 무더위 속에 잠을 깨면 간혹 환한 달빛과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바람 한 점 없어 숨이 막힙니다.....

몇 년째 인도의 한 대학에서 산스크리트를 공부하고 있는 여리디여리한 스님한테서도 다음과 같은 사연이 왔다.

요즘 중부 인도는 날마다 섭씨 45도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프로펠라식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여 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그나마 잦은 정전으로 멎어버린 선풍기만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올 여름의 더위를 이 두 사연으로 인해 거뜬히 이겨나갈 것이다. 아무리 더워도 이 땅의 기온은 섭씨 45도에는 이르지 않을 테니까. 1991 - 버리고 떠나기 중에서

상사화

글 • 김기철(도예가)

일요특강 - 길상사 오감(五感) 자기경영 아카데미

가족의 마음을 여는 공감 대화법

고현희 (공감대화 개발원 원장)

8월 28(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명전

대화를 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는걸 아십니까?

의사소통 방식을 제대로 익힌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부부 및 자녀관계에서는 서로가 자존감 형성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강한 의사 소통이 자존감이 높은 가족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소통이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대화내용을 직접 적어보고 역할놀이를 진행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대화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공감대화 글을 연재중인 고현희 원장님의 재능기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의 참석을 권장 드립니다.

해마다 중복 때면 꽃대를 다투어 내밀던 상사화가 올해는 어쩐 일인지 쥐 죽은 듯이 꼼짝을 않고 있었다. 요즘 세상 하도 시끄럽고 꼴 보기 싫으니까 아예 두 다리 쪽 뻗고 있는 대로 녹장을 부리다 한 해 걸러 나오려는지, 아니면 해마다 앓는다는 상사병으로 아주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게 아닌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늦잠을 주무셨나 중복 지내 고도 대엿새나 돼서야 낭창거리는 포주집 여자들처럼 뻐끔히 기어 나오고 있었다. 어쨌건 이쪽에서 상사병 들린 것처럼 날마다 몇 차례씩 들여다보며 기다리던 터라 무척이나 반가웠다.

대체 꽃 이름 치고는 눈물 쪽인지 웃음 쪽인지 분간이 안 간다. 하기는

머느리췌개, 짚신나물 같은 던적스런 풀 이름도 없지 않지만 이것은 또 다른 아련한 느낌을 준다. 상사화 하면 상사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보면 이루지 못할 사랑을 속으로만 끊어다가 반쯤은 미쳐서 죽어가는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을 연상케 되니 말이다. 아무튼 이 꽃의 생태는 잎과 꽃이 그렇게 판이할 수가 없다. 잎은 힘이 넘쳐 싱들거리는 다혈질 심장 여편네 같고 꽃은 나약한 선병질적인 병적 아름다움으로 천하를 뒤 흔든 서시 같은 느낌을 준다. 꽃과 잎이 마치 결합하지 못할 숙명적인 암수나 된 것처럼 제각기 놓고 있다. 잎이라는 것은 남들은 언 땅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에 온 땅 기운을 혼자 다 끌어모아 세상을 뒤엎어놓을 듯이

어귀차게 밀고 올라온다.

나는 이 꽃대만 보면 이상하게 북구 벽안의 미녀를 생각하게 된다. 절대로 봉선화나 접시꽃 분꽃처럼 포근하고 어수룩한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반드시 이 꽃이 키가 크고 쪽 빠졌다고만 해서가 아니다. 접시꽃만 해도 이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도 그것은 우리 여인네들의 분홍치마 자주고름을 떠올리게 하고 원색의 조화를 실현시킨 단청이나 색동옷 빛깔은 물론 무당들이 걸치는 수많은 무복들을 연상하게 된다. 아무튼 이 꽃 생김새나 생리라는 것이 묘하다. 그것은 다분히 이중적인 면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상사병이 들린 병적인 빛깔과 허약하기 짝이 없는 꽃대같이 보이다가도 어느새 티 없이 매끄러운 쪽 빠진 미녀들의 생동하는 나체처럼 나타난다면 터무니없는 과장일까? 사실 늘씬한 북구 미녀들이 신비의 동방 나라 어떤 곳까지 작열하는 태양빛을 따라 일광욕을 나와 서 있는 것 같기도 하

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미인대회라는 게 있어 훌쩍 벗은 미녀들이 제 날씬한 몸매를 두 다리로 추켜세워 한껏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민망스럽다 할까 다행스러운 것은 나처럼 텔레비전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에게 이 시골구석까지 찾아와 일 년에 딱 한차례씩요 따분하고 갑갑한 때에 맞춰 정신이 번쩍 나도록 눈요기를 시켜주니 체면불구하고 턱을 받치고 바짝 붙어 앉아 신선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는 호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언젠가 학창 시절 나는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한다고 삼복지경에 짐통같은 도서관에 엎드려 있다가 잠깐 바람이나 쐬러 교정 잔디밭에 나앉아 있는데 활짝 핀 해바라기 같은 양산을 머리 위에 띄우고 상큼상큼 걸어 들어오는 늘씬한 미녀들을 보고 상쾌한 기분으로 감상한 일이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여자 보기를 우습게 알고 건방을 부리던 시절이건만 이들은 마치 하늘의 선녀들 모양 황홀하게 다

가왔다. 그 달아오른 은빛 모래마당 위로 걸음을 떼어놓는 수정 같은 양다리와 화사하게 햇별을 가린 상체는 공중에 떠받친 양산 그늘에 더없이 신선하게 보였다. 당시만 해도 촌스럽기 짝이 없는 선머슴꾼 같은 남학생만 득시글거리던 캠퍼스에 그것도 아무도 나와 얼씬거리지 않는 교정에서 호젓하게 서늘한 미녀들을 구경할 수 있었으니 수작 한번 걸어보지 못했다 해도 재수 옴 붙은 날이 아니라 역세게 운수가 터진 날이었다.

나는 어찌해서 요즈음 활짝 핀 상사화 꽃무리를 보고 몇십 년 전 꽃처럼 화사하게 교정을 걸어 들어오던 여성들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우리 올안에서는 지금 몇 군데 상사화 꽃무더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마당가 큰 포기는 꽃대가 마흔 개가 넘고 한 대에 일곱 여덟 개 심지어는 열 개가 넘는 나팔 같은 꽃이 달려 있으니 자그마치 삼사백 송이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연분홍도 연보라도 아닌, 환상적이라기보다는 유령 같은

빛깔은 꽃대처럼 맑고 투명하다. 이렇게 서로 아우성치듯 몰려 있는 꽃덩어리는 화사한 꽃무늬 양산을 받친 수많은 여인들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모래사장에 모여 서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들은 이제 와서 언제까지 본색을 감추고 새침만 떨까 보냐는 식으로 야들야들한 꽃잎을 살짝 또는 활짝 열어놓고 가늘게 떨고 있다. 아뵘새! 몇 놈은 어느새 벌린 입술이 파랗게 질려 핏기가 가시고 있었다. 참 서운한 것은 피는가 싶으면 시들고 있으니 이 하찮은 상사화만 해도 인생무상을 가르치는 것인가? 하키야 발끝에 채이는 풀잎의 이슬방울까지 우리 인생을 수시로 준엄하게 일깨워주고 있으니 생자필멸(生者必滅)을 들먹일 필요도 없겠다.

대낮에 귀가 따갑게 울부짖던 매미도 숨을 죽이고 교묘한 달빛이 찾아들면 벌어진 꽃잎은 한층 싸늘하게 창백해진다. 더구나 이글대는 불꽃같던 꽃덩어리도 애처롭게 죽은이의 꽃상여처럼 생전의 원을 풀지 못

해 발길을 못 떼어놓고 있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가엾게도 누구를 그렇게 애간장 태우며 그리다 죽은 녀이 하고많은 사연을 하소연하려 떼지어 몰려나와 제각기 울부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라리 이 상사화의 진면목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요염한 복구 미녀의 육체로 비유되기에 달빛 속에서의 이 꽃은 원혼의 화신처럼 서럽고 가련하게만 떠오른다. 바로 엇그제 같던 어린 시절 극진히도 나를 귀여워해주던 친척 누나가 한 분 있었다. 그는 분꽃처럼 예쁘고 인정이 많던, 솜씨 또한 뛰어난 일등 산부감이었다. 그러나 집에서 멋대로 결정한 남자에게 매까지 맞아가며 몸은 끌려갔으나 이미 마음에 작정한 사랑하는 이를 두고는 음독자살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꽃잎들은 달빛에 동동 뜨듯 아련한 자태로 일렁대는 것 같고

울음을 한입 가득 문 것 같은 누님의 고운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불쌍하게 꽃 한번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간이 세상이었으니, 저 세상에서야 무슨 큰 죄업을 쌓았다고 그 한 많은 사랑의 꽃을 못 피울 까닭도 없겠나 싶다.

해변에 늘어선 팔등신 미녀들의 팽팽한 장편지도 때가 지나면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주글거리는 것 같이 이제 얼마 안 가면 저 매끄러운 꽃대 역시 시들어 주저 물러앉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 이승에서는 상사병을 앓으며 숨바꼭질 하듯 애만 태우던 지상에서의 비운이 있도 살아 들어가고 꽃대도 뒤따라 찾아드는 저 세상 지하에서나 생전의 한이 풀려 죽자 사자 열싸안고 덩구는지 그제 바로 궁금한 상사화의 의문으로 남는 것이다.

김기철 • 자연에 대한 관심이 깊어 40대 중반 교직을 떠나 흙과 벗하는 삶을 선택한 그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보원요(寶元窯)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 도자기는 주로 백자와 그 특유의 자연색 도자기인데 식물 잎사귀나 꽃, 열매, 물고기, 곤충 등 다양한 자연 소재의 작품들을 내놓고 있다. 그의 작품은 대형 박물관을 비롯해 미국, 스웨덴 등 유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무소유와 생태운동 ①

글 •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제가 지금껏 후회스러운 게 있다면 법정 스님이 살아 계실 때 뵙지 못한 것이 새삼스럽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지 마시고 평소에 뵙고 싶은 분이 있으면 생각날 때 찾아가십시오. 저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원주에 계시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몹시 편찮으셨을 때 용기를 내서 대구에서 찾아가 만나질 동안 뵙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십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굉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책을 쓰는 분이 아니므로 한번 뵙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도, 한 사람 인생에서…….

제가 법정 스님의 책만 읽고 판단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통해서 느끼기에 종교인이라기보

다 많은 분, 동양의 산수화 같은 분, 쓸데없는 군더더기는 일체 배제하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소유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젊었을 때 무소유를 안 읽은 사람이 없었죠. 엄격히 말하면 무소유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적게 소유한다, 쓸데없는 걸 소유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하셨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무소유라고 하면 집도 갖지 말아야 하고,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하고, 가족도 갖지 말아야 되고, 옷도, 안경도…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독일의 철학자인데, 공원에서 일반시민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고 공원 벤치에서 잠자고요. 신기해서 한국 유학생이 다가가서 왜 이렇게 사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한때 석가모니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무소유로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잠잘 곳이 없어요. 주최 측에서는 호텔을 준비했는데 호텔은 갑갑해서 잘 수가 없다고 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영등포역사에서 노숙자들과 같이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갔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는 분인데,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보통사람이 그렇게 살 순 없죠.

어쨌든 무소유라는 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였을 때 쓸데없는 걸 갖지 않는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통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저 자신도 쓸데없는 거 굳더더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님의 책을 보면서 이분이 내 편이라고 오래전부터 사숙(私淑)을 해 왔는데 평생 한 번도 뵙질 못한 게

두고두고 유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가난하게 사는 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 시절이 한없이 그림고 더 그리운 게 그때는 사람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살벌하진 않았잖아요. 지금은 심심치 않게 사후에 한 번 정도 자식이 부모 죽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래요. 어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태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 운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 생명을 아끼자는 얘기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지금도 그분이 살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스위스 여성인데 저도 그분 만나 본 적은 없고 10년 전쯤 신문을 봤어요. 20대 수녀님인가 그럴 겁니다. 70년대 초에 우연히 한국에 와서 서울 판자촌 구경을 했어요. 돌아다니다가 어느 동네에서 10여 명의 아

이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는 걸 본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들으면 기겁을 할 노릇이죠. 남의 침이 묻어있는 아이스크림인데……. 그 장면을 보고 충격과 더불어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과 살겠다면 한국으로 짐을 싸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두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어 더는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을 때 은퇴를 하고 충청도 어느 시골에 가서 혼자 사는데 기자가 찾아가서 한국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물었는데 그분이 몹시 화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사회가 70년대 한국과 너무 다르다. 한국이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는 그때 한국에 와서 살지 않았다. 자기가 보기에 지금 한국은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돈만 아는 짐승들이 사는 곳이다. 한국이 이렇게 사나운 사회가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어찌다 이렇게 됐으면서 눈물

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보다 더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예요. 그걸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괜히 그분한테 제가 사기 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살다 보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제로 잘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앞으로 5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비단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로 비판적인 자료들을 보고 살고 있으므로 예민해져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과학기술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고 있으므로 다행인데, 알면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하느냐면 20~30년 안에 사람이 가진 일자리 절반 이상이 없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들 실업문제가 심

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물론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인간적인 정치가 되고, 없는 사람들 형편을 좀 더 배려하는 정치가 된다면 지금보다 조금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골치 아픈 인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자동기술과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쓰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경제, 경영이라는 게 비용 문제잖아요. 무엇보다 비용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훨씬싼 값으로 문제없이 로봇을 써서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데 왜 사람노동자를 쓰겠습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로봇이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로봇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인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쯤에 녹색평론에 이런 글을 하나 번역해서 실은 게 있

습니다. '빌 조이'라고 하는 유명한 컴퓨터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 방면에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는데 썬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컴퓨터회사를 경영하던 과학자인데, 이분이 당대 과학계에서는 천재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번은 자기랑 비슷한 천재들과 캘리포니아 무슨 대학에 모여 며칠 동안 종합심포지엄을 했다고 합니다. 로봇 하는 과학자, 나노테크놀로지 하는 과학자, 생명공학 연구자, 컴퓨터 하는 기술자, 각 분야 소위 첨단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앞장서서 연구하는 연구자, 기술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하는 일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며칠 동안 듣다 보니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세미나를 끝내고 돌아와서 몇 달 동안 고민하다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이 '앞으로 인간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입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인공지능과 나노테크놀로지라고 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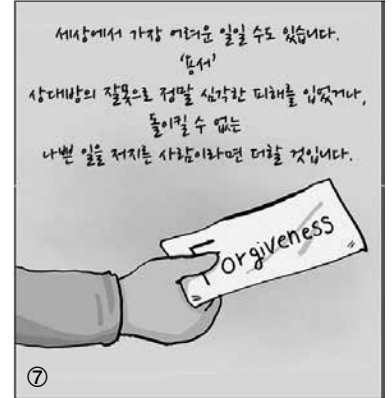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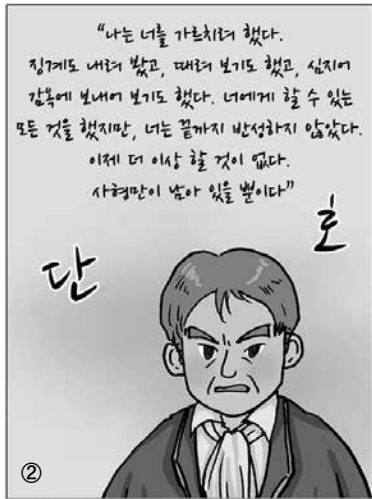
20세기 첨단과학은 화학, 중화학 공업, 천문학, 원자력 이런 것들입니다. 원자력 시스템은 한두 사람이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지원으로 굉장히 떠들썩한 대규모 사업이지만, 생명공학이나 인공지능 같은 것은 연구실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연구실의 과학자가 이미 인조인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나 이런 식으로 연구해 들어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국가나 공동체에서 생명 윤리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개적으로는 연구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숨어서 얼마든지 은밀하게 한 두 사람의 과학자들

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들이 발달해가면 진짜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 사람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이팅이라는 신문에 발표했던 글인데 저는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쪽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뒤에 뭐하는가 싶어서 몇 년 뒤에 찾아보니까 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로키산맥에 들어가서 암자 하나 지어놓고 명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명상생활로 들어가야 하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자신도 없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역시 나는 죽을 때까지 사람 속에 있다가 죽는 수밖에 없다. 싫든 좋든 그냥 사람 속에 있다가 사람하고 끊임없이 고민스러운 이야기 나누다가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던 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2015년 10월 25일

김종철 교수 일요특강 정리

용서



Illustr by Seunghye Kang

이탈의 명언

- 용서할 줄 알아야 사랑할 줄도 안다.
-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열어 주는 열쇠다.
- 용서하는 마음은 덕을 쌓는 일이다.
-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 가장 나쁜 사람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 토마스 풀러

* 출처 : 따뜻한 하루

나 때문이다!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오늘, 더위로 인해 지치셨나요? 혹은 아내가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행복하셨나요? 혹은 친구를 배려하는 아이를 보면서 뿌듯하셨나요? 혹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마다 바로바로 연결되어 기분이 좋으셨나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느낀 감정을 가만히 떠올려보십시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느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느낌들 중 5개만 아래 숫자 다음에 적어보십시오.

1. 느낌 : _____
이유 : _____
2. 느낌 : _____
이유 : _____
3. 느낌 : _____

- 이유 : _____
4. 느낌 : _____
이유 : _____
 5. 느낌 : _____
이유 : _____

다양한 느낌들은 왜 생겼을까요?
그 '이유'를 적어보십시오.

나의 느낌은 모두 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더위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이 아니고, 아이 때문이 아니고, 대중교통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느낌은 내 바람이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았거나, 바람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더위로 인해 지친 느낌은 여름 고

온을 몸이 견딜 수 있기를 바랐는데 체력이 안 되었기 때문일 수 있고, 아내가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바랐는데 그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일 수 있고, 아이가 사회의 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바람대로 성장해가고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뿌듯한 것일 수 있고,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시간을 절약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결되자 기분이 좋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위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든 아내는, 배려한 아이는, 우연히 연결이 착착된 대중교통은 나의 바람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요? 공감대화에서는 이것들은 바람을 자극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 요소들이 바람을 자극하여 느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같은 요소라도 바람이 다르면 다른 느낌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요소라도 바람이 같으면 같은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다르게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아이가 항상 친구를 배려하여 행동한 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힘들어한다고 가정하여 보면, 부모의 바람은 아이가 친구를 배려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오늘도 친구를 배려하면서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부모가 보았다면 기운이 빠질 것입니다. 친구를 배려하는 아이의 행동은 부모의 바람,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바람을 자극하여 기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낌은 바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 때문에 부모가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바람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회의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회의시간에 맞추어 완벽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다른 일로 인해서 내일로 회

의를 미뤘다면 허탈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시간까지 자료 준비가 끝나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사가 다른 일로 인해서 내일로 회의를 미뤘을 때 초조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상사가 회의를 내일로 미룬 것은 바람을 자극한 요소입니다. ‘완벽한 자료 가지고 기대에 차서 회의를 하려고 한’ 바람을 자극한 경우는 허탈한 기분이고, ‘자료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바람을 자극한 경우는 휴~ 하고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낌은 바람에서 올라오는 꽃입니다. 바람을 자극한 요소를 만든 상대를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바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바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 생기는지를!

맛지마 니까야의 여러 종류의 요소 경에서 아난다가 세존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할 때 비구가 현자이고 검증하는 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아난다여, 비구가 요소(界)에 능숙하고, 감각장소(處)에 능숙하고, 연기(緣起)에 능숙하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능숙할 때 그 비구는 현자이고 검증하는 자라고 불릴 수 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해주세요.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만큼 펼쳐집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100% 회원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후원 및 회원가입은 홈페이지나 사무국으로 방문해주세요.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인연

글 • 김광석(나고아대학 교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인간 사는 모든 인연으로 맺어진 것 같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인연일 것이다. 아무 때나 이렇게 글을 남기고 싶은 맘이 일어나지 않으나 인연이 닿으면 이렇게 글을 적곤 한다. 한순간의 감정을 남겨두고 싶어서 컴퓨터의 자판을 두들겨도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것은 인연이 아닌 순간을 억지로 엮어매려고 해서일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연을 맺는다. 먼저 부모와의 인연이요, 시절과의 인연이요, 형제와의 인연이요, 벗과의 인연이요, 배필과의 인연이요, 자식 간의 만남 또한 크나큰 인연일 것이며 우주 삼라만상과의 인연이 모두 그러할 것이다. 이 세상 인연

이 닿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으리오. 그것을 어둔한 인간이 억지로 엮어매려고 하니 이곳저곳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죽네사네하는 것이다.

내 나이 사십 후반을 넘어 이생에서 아버지와의 인연을 끝맺는 천하의 불효를 범한 후에서야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것도 나의 인생에서 큰 인연일 것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처해 있는 지금의 환경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 늘 새로운 순간들을 뿔속 마디마디로 느끼며 산다. 그래서 언제나 새롭고 미치도록 행복함에 눈물겨운 시간을 초단위로 느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성

싶다.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신비의 세계를 지금 난 누리고 있는 것이다.

내일이 없다 하여도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한순간 온 힘을 다해 살았으니 후회 없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모두 닮았다. 내 마음을 뒤흔드는 아름다운 선율이 그러하고, 어린 시절 엄마 품에 안긴듯한 포근함과 지독하게 엄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세상에 돌도 없이 감흥을 주는 책 한 권이 이 순간 나를 더없이 황홀하게 한다.

오늘은 작은아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났었다. 이것 또한 그 시간이 나의 작은아들하고는 인연이 아닌 시간이었을 것이다. 늘 좋은 아빠, 늘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한 인연이 아닌 시간에 전 화했으니 화가 나고 서로 언짢은 기분의 여운을 남기게 되었다. 사랑하는 자신의 피붙이에게 어찌 험한 말이 나오겠는가. 이것은 아빠가 아닌, 자식이 아닌 순간을 무리하게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얽매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리라. 성급하게 서두른다고 없는 인연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은 서

로에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니 어느 것 하나 언지 못한 불행한 순간이고 만다.

인연은 때가 있기 마련이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만 피는 꽃이 있을 것이다. 봄에 피는 꽃을 보고 가을에 꽃잎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쳐본들 어찌 꽃잎을 펼쳐 보이겠는가. 우주 삼라만상이 시절이 있는 법인데 이 어리석은 중생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채 아우성을 쳤으니 이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 할 자격이 있겠는가. 나의 어리석음이 부끄럽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애비로 인해 가슴에 상처가 남아 있을 작은아들에게 용서를 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 해서 나를 떠난 그들에게도 좋은 음악일 수 없고, 내 몸에 어울리는 좋은 옷이라 해서 그들에게도 어울리는 좋은 옷일 수는 없으며, 나에게 좋은 책이라 해서 그들에게도 좋은 책일 수는 없고, 내 입맛에 맞는 좋은 음식이라 해서 그들에게도 입맛에 맞을 리가 없으며, 나의 사고가 이렇다고 해서

그들에게까지 나의 사고를 강요한다면 이 어찌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는가. 많은 선택사항 중 하나를 더 보태는 선택 추가사항일 수밖에 없다. 취하고 취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인연에 맡겨두는 것이 바른 것이다. 모든 것은 시절이 있을 터이니까.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그렇지 못한 자는 그렇지 못한 대로, 내 집이 있는 자는 내 집이 있는 대로 내 집이 없는 자는 내 집이 없는 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스승과 제자는 스승과 제자대로, 부모와 자식 자식은 부모와 자식대로, 임금과 백성은 임금과 백성대로의 인연이 존재한다. 인연이 아니면 서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요, 인연이라면 지금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더없는 행복을 느낄 것이다.

나는 이 순간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좋은 인연과 더없이 좋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나와 더 없는 인연을 가진 노스님의 새로운 책 한 권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도 나만의 인연이 닿아서 오늘 이 시간

그 스님의 주옥같은 글로 함께 할 수 있었으니 어찌 좋은 인연이 아니겠는가. 나의 모든 정성을 바쳐 감사드리며 어서 쾌유하기를 두 손 모아 합장한다.

사람들이여 지금 당신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지금 당신이 고통을 느낀다면, 지금 당신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니 잠시 내려두고 다시 인연을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만의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그 인연을 놓치지 마시고, 인연을 만나는 순간 전부를 바쳐 온몸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불행은 어찌면 불행하지 않을 것을 억지로 불행을 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무거운 짐은 인연이 아니니 어서 내려두시고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인연만을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난 이 밤 노스님과의 인연을 더 해 나갑니다. 나의 인연이 다할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의 인연에 감사드리며 행복을 빕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합장).

위험한 홀로 서기

8월 결연 대상자-김명자 어르신

혼자가 된 어르신

동부로는 동해안 성진만과 접해있고 서부로는 마천령산맥과 접해 있어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함경북도 성진시는 김명자 어르신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유독 어르신을 사랑한 아버지는 총명한 어르신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없는 살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 다. 아버지의 지원으로 어르신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도 잠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어르신은 22살의 나이에 홀로 남한으로 내려 왔습니 다. 함께 남으로 내려오던 부모님은 잃어버린 언니를 찾기 위해 다시 북으로 올라갔지만 그 뒤로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의지하던 가족

을 잃고 어르신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어르신

남한으로 내려오고 1년 후 어르신은 헌병대에서 근무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일가친척이 없었던 어르신은 남편에게 지극정성을 다해 내조했다고 합니다. 그 덕이었는데 남편은 헌병대를 전역하고 서울 시경에서 근무하며 계속해서 진급을 했습니다. 또 슬하에 아들 3명과 딸 1명을 낳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께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가 외도를 하는 것이 큰 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만을 의지했던 어르신께 남편의 잦은 외도는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 중에 어르신은 자궁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자궁암은 치료가 되었지만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하혈을 하는 병이 생겼습니 다. 그 후 자식들이 하나 둘 결혼을 했고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난 어르신은 56세의 나이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에 반대하여 어르신은 남편을 떠나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수급자가 될 수도 없었고 이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자료 등 그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독한 생활고에도 어르신은 홀가분함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몸으로 일을 하다가 하혈로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하고 당뇨병, 녹내장이 심해져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매월 생활비를 지원했습니

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죽으면서 재산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이 때 큰아들은 어르신께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하루하루 위험한 홀로서기

어르신의 한 달 수입은 기초연금과 장애수당을 포함해서 약 24만 원입니다. 어르신의 한 달 지출내역은 월세 8만원, 하혈 방지 약 8만원, 당뇨 및 녹내장 치료에 4만원, 나머지는 공과금과 생계비로 사용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하혈 방지 약을 사지 못한 날엔 어김없이 응급실로 실려 가는 위험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월 12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자 288만의 후원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이 홀로 안전한 삶을 지내실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기다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거리 캠페인 일정 : 8월 28일(일) 길상사 경내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 서진규 박사

글 • 김창수(희망아카데미 원장)

서진규는 1948년 경상남도 동래군 어촌 마을 월내에서 옛장수 딸로 태어났다. 1967년 서울 풍문여고를 졸업하고 가발공장에 취업하여 일하던 중 1971년 미국 선교사가 가정부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단돈 100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1975년 한국인과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폭력에 못이겨 1976년 미 육군에 자원 입대하였다. 군 복무 중 1987년 용산 메릴린대 분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1990년 하버드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했으며, 1992년에 하버드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1996년 미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후 1999년 박사학위를 수료했으며, 2006년에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가난한 옛장수 딸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희망의 증거' 서진규 박사가 걸어온 길이다. 어촌 마을에서 옛장수의 딸로 태어난 그녀, 변변한 어선이라도 한 척 있었다면 그녀의 오늘은 또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어촌에서 엿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생활인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가발공장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결국 그녀는 가정부 생활을 위해 도미했다.

희망을 찾아 떠난 미국 생활에서 희망보다는 시련과 역경에 시달려야 했

고 또 다른 도피처를 찾아 미 육군에서 자원입대하였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으나 폭력에 못이겨 이혼하고, 미군 장교와 재혼했으나 또 다시 이혼하는 삶의 시련 속에서 군대라는 테두리에 전념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 육군 소령으로 승진하였고, 59세의 늦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 왔다고 믿기 어려운 인생을 서진규 박사는 살았다. 희망을 찾고자 했으나 그녀가 살아온 시간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까웠고, 밝은 내일을 꿈꾸었지만 냉혹한 오늘날 있는 시간의 중심에 그녀는 있었다. 순간순간이 절체절명의 연속인 삶에서 어느 하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점에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줄기 희망의 빛을 갈망하며 결코 자신을 현실 속에 묻어두지 않았다. 희망을 갈구하는 끈질긴 기다림은 59세라는 늦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최고의 예우를 받는 위치에 도달했다.



가발공장 여공에서 하버드대 박사가 된 희망메신저, 서진규 (사진 출처 - 열정락 콘서트)

꿈을 찾아 미국으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서진규 박사는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그녀는 틀림없는 희망의 증거이다. 꿈과 희망을 갖고 삶의 열정으로 생활한다면 기필코 희망과 믿음은 저버리지 않는다는 진실을 서진규 박사는 증명해주고 있다. 삶의 희망은 나이순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꿈꾸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오늘도 앞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서진규 박사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다.

“아니오”보다 못한 “예”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부름의전화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였다.

자원활동자들만으로 구성된 단체를 운영하는 일이니 힘든 일이 한 두 가지였을까마는 “부름의 전화 못해먹겠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일 중에 “예”와 “아니오”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한몫 했다.

남을 돕는 일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어떻게 돕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보지 않았고, 돕는 대상도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자원활동은 시간이 많은 사람,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

의 생각과 시간에 맞추어 자원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 ‘내가 주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주었으니 받아야 한다,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니 약속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런데도 자원활동자들은 일체의 모든 일을 자기부담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분만 바랄 뿐이었다.

장애인 또한 도움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른 이해가 부족했다.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조건 없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무 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예고도 없이 약속을 취소하기도 했다.

장애인활동보조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일이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일 10시에 친구와 만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9시까지 꼭 와 주세요요”였다. 그 시간부터 그 일을 도와줄 자원활동자를 찾기 위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자원활동자들은 외출 중인 사람이 많았다. 지금처럼 휴대폰을 사용했다면 언제라도 통화가 가능했겠지만 그때는 외출 중이면 통화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자원활동자와 통화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퇴근을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 통화가 되었다 해도 “미안합니다, 내일은 안 되겠는데요, 모래는 가능한데요”였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가고 활동할 사람은 연결이 되지 않고, “아니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내일 꼭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라고 간곡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도와줄 활동자를 찾아

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늦은 시각까지 자원활동자를 찾는 전화를 했다.

30번째의 전화였다. 다행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눈물이 날만큼 고마웠다. 비로소 안심을 하며 퇴근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자원활동자의 전화였다. 장애인을 찾아갔는데 “약속이 취소되었다”라고 짧게 한마디 하더라. 순간 온몸의 피가 머리로 치솟아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도움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었다더라면 늦은 시간까지, 30번의 전화 다이얼을 돌리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와 “아니오”를 결정해야 하는 일을 수시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예”라고 대답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일을 접어야 할 때도 있다. 반면에 아무 생각 없이 “예”라고 대답해놓고 무감각하게 약속을 취소하기도 한다.

자원활동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한결 같이 약속 이행에 관한 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어떤 자원활동자 담당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분은 자원활동자를 필요로 할 때 자원활동자들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원의 2배수를 섭외한다고 했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과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애인도 자원활동자도 삼진아웃을 시행했다. 그 바람에 계획된 인원이 미달되는 사태도 발생했지만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빠르게 변화되었다.

부름의전화에서는 매월 2~3회의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적게는 70여명, 많게는 90여명의 장애인, 자원활동자들과 각각 약속을 하게 된다. 행여 잘못된 약속은 아니었나 진위 여부도 타진해본다. 그렇게 모든 약속은 행사 전날까지 완료된다.

그런 약속을 기반으로 행사용품 준비와 점심 예약을 하고, 행사준비를 한다. 그러나 어쩌다 불가항력적인 일로 행사 전날 늦은 밤에 약속이 취소되기도 한다. 그 자리는 이런 일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차순위자로 채워진다. 그렇게 계획된 행사 준비는 마무리된다.

다음날, 행사 당일 6시 40분까지 집결지에 도착하기 위해 차량지원자들은 각자의 집에서 4시 30분, 혹은 5시에 집을 나와 장애인의 가정으로 출발하여 장애인을 만나 집결지로 장애인을 이동시킨다. 그리고 계획된 시간인 새벽 7시에 버스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다. 장애인도 자원활동자도 자신의 약속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행사에 처음 참여하는 자원활동자들은 당연히 몇 사람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10~20분은 출발이 지연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언제인가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던 교수님께서 “어떻게 계획된 인원이 전원 참여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나?”며 의문을 품은 질문을 했던 일도 있다.

약속 이행이란 신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약속 이행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자원활동은 남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도 필요한 시간에서 누군가를 위해 잘라 내는 나눔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이라면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니오”보다 못한 “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이사,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여러 시민과 나눌 수 있는 분과의 소중한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모임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면 종교, 종파에 상관없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 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내 (사)맑고향기롭게
- 전 화 : 02.741-4696

올림픽이 열리는 동네

글 • 김형진(드라마 작가, PD)

“이번 종목은 100미터 달리기입니다. 출전 선수들은……”

사회자가 100미터 달리기 출발선에 선 선수들을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1레인은 우즈베키스탄의 에르킨, 2레인은 북한의 박만덕, 3레인은 필리핀의 호세피노, 한국의 하철수는 4레인에 있군요, 5레인은 태국의 솜차이, 마지막 6레인은 나이지리아의 이영애 선수입니다.”

6레인의 나이지리아 선수는 한국 이름을 가진 유일한 여자 선수입니다. 100미터 달리기를 넘겨가 함께하는 이상한 올림픽입니다.

사회자가 해설도 겸하면서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의 김예슬 선수가 출발을 앞두고 기관하는 바람

에 여섯 명의 선수만 뛰게 됐습니다. 100미터 달리기 금메달 후보는 우즈베키스탄의 에르킨인데요, 이 선수는 작년, 제작년에 이어 3년 연속 금메달을 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지만, 이곳에서는 매년 열립니다. 바로 강원도 설악산 한 자락에 자리 잡은 몽당분교에서 열리는 운동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몽당리를 떠나고 언제부터인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몽당분교에선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은 몽당분교에서 열리는 운동회를 ‘올림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몽당리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고 좋아하는 운동회, 아니 올림픽이 열리는 날입니다.

“자, 이번 운동회의 100미터 달리기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운동회의 사회를 맡은 최 박사가 마치 올림픽 해설자처럼 묻습니다. 그러자 김 상사 아저씨는 못마땅하다는 듯 통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이건 운동회가 아니고 올림픽이야, 올림픽.”

최 박사는 올림픽 해설자처럼 아이들의 100미터 달리기를 중계합니다.

“준비, 타앙!”

출발 준비를 외치며 선생님이 신호총을 쏘았습니다.

먼저 에르킨이 날쌔 말처럼 앞서 나갔습니다. 출발선부터 두각을 보인 에르킨은 다른 아이들을 제치고 성큼성큼 앞서 나가다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꼴등은 태국의 솜차이였습니다. 에르킨이 끝인 지점을 통과하고 다른 아이들도 속속 들어오자, 부모님들이 선수를 맞



이하는 코치처럼 아이들을 다독거리 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럴 가족이 없습니다. 철수는 절에 사는 동자승입니다. 혹시 큰스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기대도 해보았지만, 역시 철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운동장을 두리번거리던 눈길을 어디에 뒤야 할지 무안하고 실망스러워 고개를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따라왔던 동네 개들이 교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철규 아저씨가 경운기에 돼지 한 마리를 신고 막 교문을 들어서던 중

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경기가 끝나고 동네 할머니들의 박 터뜨리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양쪽 팀의 할아버지들이 열띤 응원을 했지만, 할머니들은 천천히 공을 던졌습니다. 답답해진 아이들이 나서서 할머니들과 함께 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젊은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철규 아저씨의 부인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철수는 베트남 아줌마를 잘 모릅니다. 다만 철규 아저씨가 아줌마와 결혼하던 날, 학교 운동장에서 잔치 음식을 푸짐하게 먹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밭에서 일하고 있는 아줌마를 지나가다 봤을 뿐 이름도 몰랐습니다.

올림픽이 계속될수록 철수의 기분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

족끼리 하는 커다란 공굴리기도 할 수 없었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놀러 가는 건데…….’

철수의 눈에 눈물이 그렇그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철수의 등을 툭툭 쳤습니다. 베트남 아줌마였습니다.

“밥 먹어.”

베트남 아줌마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서 철규 아저씨가 어서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돛자리에 먹음직스러운 김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김밥 하나를 집어 먹다가 허겁지겁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걱정이 되었는지 베트남 아줌마가 콜라를 건네주었습니다. 철수는 입안에 가득 김밥을 물고 있어 고맙다는 말도 못 하고 콜라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철수는 베트남 아줌마가 엄마 같고 누나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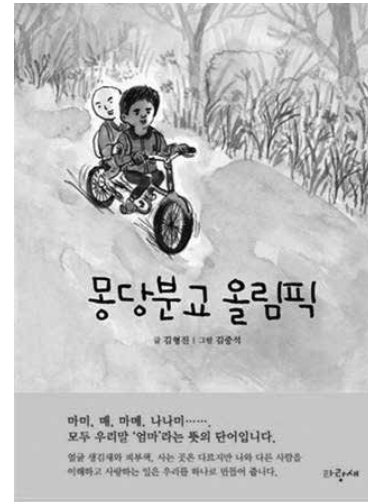
“호아.”

철규 아저씨가 대신 대답해 주었습니다.

철수는 베트남 아줌마를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서 그냥 호아 누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밥이랑 콜라를

언어먹겠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누나라고 불러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김형진 PD님이 직접 쓴 동화
‘몽당분교 올림픽’ 중에서



* 얼굴 생김새와 피부색, 사는 곳은 다르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려주는 『몽당분교 올림픽』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섯 나라 아이들이 몽당분교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다니는 몽당리의 작은 분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과 편견에 대해 고발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한국인이라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다문화 어린이'라고 구분 짓는 현실을 통해 남들과 다른 가족 형태의 아이들에게 무심고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와 인연 있는 분(회원, 길상사 신도, 봉사자 등)의 저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직접 출간하신 서적, 발표하신 글을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월간 맑고 향기롭게'에 소중하게 담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군(將軍)과 군중(群衆)

글 • 윤언덕(작가)

1980년대 초반 어느 해의 늦은 봄이었다. 당시 5.18 사태라고 불리던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전해의 일이었다. 대학 2년생인 우리에게는 이수하지 않으면 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련'이라는 과목이었다.

대학에 와서 학군단이라는 곳에서 교련을 배워보니 고등학교 교련 시간에 배우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다만 차이점은 1~2학년에만 배우는 이 과목을 학년마다 필수적으로 직접 군부대에 입소해서 열흘 가량 숙식하며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통제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군사 훈련을 받는다는 점은 당시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던 우리에게 다소 수치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전해인 1학년 때는 학교가 속한 지역의 향토사단에 입소해서 열흘 동안 군사 기본훈련을 받았다. 우리가 훈련 중인 열흘 동안 해당 사단의 장교나 조교들은 부대에 교련 교육받으러 온 학생들에게 본때를 보이기로 작심한 듯했다. 구보나 각개전투 등의 훈련에서 체력이 약해서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열차려'라고 불리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기본이었고 군인이 아닌 학생 신분임에도 각목이나 야전삽 등으로 심한 구타를 가하는 것도 예사였다.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곳에서의 모욕은 우리에게 지급된 군복의 등판에 페인트로 인쇄된 '삼청교육대'라는 표시였다. 그것은 각개전투

등 격한 훈련을 하는 훈련병들에게 지급되는 허드레옷이라고 생각 없이 지급하다 보니 일어난 촌극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말로만 듣던 삼청교육대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장소에서 '병영 집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군사교육을 받는다 고 생각하니 비참한 심정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물며 그들이 '인간쓰레기'라며 정화 대상으로 부르던 사람들이 입던 옷을 대학생인 우리에게도 입히니 더욱 그랬다.

당시 우리는 자신이 속했던 폐쇄된 사회 탓에 선진 민주주의의 실상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왕처럼 군림하던 군인 출신 대통령이 죽으니 그 아래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하는 이들도 많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부당성을 외치는 시민들을 총칼로 진압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선량한 시민을 무력으로 근거 없이 잡아 가두고 고통을 가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

라 역사에서 보는 악랄한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란 점도 그랬다.

지난해의 우울한 기억을 뒤로하고, 신춘역에서 갈아탄 열차는 파주에 위치한 사단급 군부대로 향하고 있었다. 중간에 금촌이라든가 파주역이라는 작은 시골 역이 보였으나 그곳을 지나 문산역에 도착할 즈음에는 난생처음 '전방(前方)'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발을 딛게 되었다. 북한군이 수시로 출몰하는 지역에서 철책 근무를 하게 된다는 사실에 얼마간의 공포심이 생기기도 했다. 그 시대를 같이 한 관심 있는 이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도착한 부대는 12.12 군사쿠데타가 성공하게끔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대였다. 정치군인이 도모했던 군사쿠데타가 반대세력에 의해 위기에 처하자 친구인 공병이 자신이 사단장으로 있던 그곳 부대의 병력을 서울로 진입하게끔 해서 사태의 반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각종 과학 장비가 발달하여서 전방 철책선 근무라는 것이 어

면 의미인지 모르겠다. 디지털화된 열 감지 카메라가 경계병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철책을 넘은 북한군이 아군 초소에 노크로 귀순하는 보도를 접하는 현시점에서 철책선의 경계병 의미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우리가 그 부대에 도착한 후, 열흘 동안 ROTC 출신 중위가 각각 50명씩으로 구성된 대학생 교육 소대를 직접 지휘했다. 우리에게 밤마다 경계병들과 함께 철책선 저편에서 누군가 침투하는 것이 아닌지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그 부대에서는 1년 전의 향토사단에서와는 달리 아주 신제품인 군복과 보급품을 지급했고 식사 또한 그곳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것이어서 과연 전망은 전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열흘 동안 간단한 구보와 각개전투 같은 것을 훈련했는데 장교나 기간병들이 비인간적인 모욕을 주거나 구타를 가하지는 않았다. ROTC 출신 소대장 중위는 우리와 같은 수준 정도

의 병력을 갖고 부대를 지휘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부대를 만듦을 자신이 있다는 말을 했고 하루는 대대장인 중령이 내무반에 와서 자유스러운 대담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은 대령 계급장을 단 연대장이 내무반에 와서 전날과 같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들은 뭔가 양해를 구하고 타이르는 투의 논리로 교육을 도모했는데 '나라가 조용해야 북한이 쳐들어오질 않고 또 정치적인 안정이 나라 발전의 첩경이니 다들 면학에 열중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육체적으로 괴로울 것이라는 걱정과 달리 열흘은 금방 지나갔고 퇴소식 날이 밝았다.

문산역 앞에서 교련복을 입고 도열하고 있으니 사단 군악대가 나타나 무슨 행진곡 같은 것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검은 안경에 별 두 개의 계급장을 단 모자를 쓴 장군이 나타났다. ROTC 출신 소대장은 퇴소식 때 사단장이 일일이 악수를 청할 것이니 장군이 악수를 청하면 손

을 꼭 잡지 말고 가볍게 잡힌 상태에서 우렁차게 관동성명을 외치라고 주문했다. 그때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고 뭐라고 했는지 지금 기억에 남지 않는다. 아마 '예! 교육생 김 아무개!' 이런 식이 아니었나 싶다.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더니 사단장 훈시가 시작되었다.

“전체 차렷! 사단장님께 경례!”

지금 생각해보면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순간이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독재자는 '국가'라는 명목으로 '복종 표시를 당연시하는 폭력을 가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그것을 폭력이라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훈시가 마치면 우리는 열차를 타고 귀가하게 될 것이고 적어도 실제로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군대'라는 낱말을 잊고 생활해도 될 터였다. 정치의 안정이 국가의 안정이라는 논조의 훈시를 끝낸 장군은 “질문 없나?”라고 물었다. 대개 그런 자리는 조용하게 끝나기 마련이었는데 아무

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 중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뭔가?”

“군부는 왜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까?”

갑자기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러다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씩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아, 쓸데없는 저런 질문을 왜 하지?’라는 불만 어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 한쪽에서는 ‘저놈 때문에 전체가 행여 피곤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푸념도 튀어나왔다. 그러나 사단장의 신경질적인 고함 한마디는 금방 좌증을 진압했다.

“학생은 본분인 공부만 하란 말이야!”

질문한 친구 또한 만만하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군인은 왜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 겁니까. 나라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 용성거림의 내용은 전과 같았다. “답은 뻔할 것인데 동료들에게 왜 피해를 주느냐는 이기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곧 조용해졌다. 장군의 연이은 고향 때문이었다. “학생은 공부만 하란 말이야! 알겠어? 자네! 개인적으로 꼭 한 번 찾아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질문자는 옆 학과에 다니는 내 친구의 친구로 나와도 안면이 많은 사이였다. 당시 학교 도서관에서 사회학과 역사철학에 몰두하고 있던 내가 볼 때 그는 운동권은 아니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끼리끼리 사용하는 몇 가지의 용어만 살펴도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파악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인연이 되어 졸업 후 그와 같은 그룹군의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신입사원 연수 때는 같은 방에서 장시간 생활하게 되었다. 둘이 있을 때 그날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를 물어보았다. 정치외교학이 전공인 그의 답은 이랬다. 정치사에 만연한 군사 정

변에 참가하는 이의 본심이 무엇인지 궁금했다는 것이다. 그만의 학구열이 그런 질문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날, 검은 안경의 장군과 학생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발을 들여 놓고 있는 시대는 군중의 시대라고 불려야 할 것 같다. 프랑스 사회학자 르봉은 “군중은 진실을 갈망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군중의 시대’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군부가 왜 정치에 개입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그 질문 자체를 외면하고 말았다.

개인이 군중에 속하면 더 큰 힘을 갖게 된 것처럼 행동한다. 군중 속에서 자기를 잃고 익명화되어 무책임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그날 상황에서는 군중이라는 학생들 대부분은 질문한 동료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내가 볼 때는 군중이 된 학생들은 권력자 앞에서 비이성적이었으며 동료의 행동이 참인 줄 알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군중 속에 숨는 일은 쉽지만, 빠져나오기란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날이었다.

人間이 살아가는 길

글 • 김영수(회원)

自己意思와는 상관도 없이 소용돌이 치는 삶 속으로 던져진 듯한 인생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권력있는 사람 권력없는 사람 각자의 人生은 어떠한 意味를 가지고 있는가? 自由意志가 있는 인간 던져진 삶 속에는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부처요, 나 또한 부처인 즉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부처인 것을 人間아 깨달아라! 네가 곧 부처임을! 人生아 깨어라! 네가 곧 부처임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줌의 흙과 바람으로 가는 길, 空手來 空手去라 태어나기 이전으로 가는 길, 다시 돌아가는 길 내가 돌아갈 때 무얼 가지고 가나 돌아가는 그날까지 사고하고 배우고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가자
석가모니는 말씀하시길 “一切衆生은 원래 부처다”	

* 김영수 회원은 20여 년 다니던 천주교에서 개종하여 송광사 말사인 천자암에서 활안스님으로부터 법명 대선(大仙) 수계하였으며, 금융계 임원으로 퇴직 후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김치 나눔 활동 : 3월 ~ 11월 둘째 목요일)

*** 전화 말벗 자원활동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대상자 중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게 봉사자가 가정에서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지켜보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대화기법 · 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노인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 :**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8월은 첫째 일요일(7일) 진행합니다.

*** '아름다운 만남' 청소년 정기 자원활동 :**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과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활감과 발달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 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정기 자원활동**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데 일조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에 후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1명의 사연 소개와 다음카카오 '갈이가지' 온라인 모금과 더불어 1~2회 거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결연 후원, 의류비·난방비 지원, 사례 관리 등의 공익사업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나눔장터 안내

4월에서 10월까지 넷째 일요일에 회원님과 신도님이 즐겁게 참여하고 운영하는 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 장터 참여 품목 :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리폼한 소품, 직접 재배한 유기농산물, 수제 천연화장품&친환경 세제, 재고로 남은 환경용품, 공예소품, 친환경 먹거리 등, 개인 재활용품 베품시장 참여
- 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 장소 : 길상사 뜨락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 급식 자원활동**은 7월 26일부터 9월 26일 까지 센터 식당 내부공사로 인하여 자원활동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숲과 전통시장을 찾아서' 안내

- 8월은 휴가철과 더위로 인하여 진행하지 않습니다.
- 9월 3일 : 충남 천리포수목원, 태안 태안장
- 10월 1일 : 충북 옥순봉 충주호 주변의 절경, 단양 단양장
- 참가비 : 35,000원(장터 점심 식비 포함)
- 9월 숲기행 천리포수목원 입장료는 개인부담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 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운

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 '길상사 오감 경영 아카데미' : 28일(일)오전 11시/가족의 마음을 여는 공감 대화법 / 고현희 공감대화 개발원장 /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목, 금요일(4,5,18,19,25,26일)/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1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7월 26일 ~ 9월 26일 센터 식당 공사로 자원활동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인진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첫째 일요일(7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3일)/오후 1시30분/세계일화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20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넷째 일요일(28일)/길상사 경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2,9,16,23,30일)/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3,10,17,24일)
- 녹색나눔장터 : 넷째 일요일(28일)/길상사 경내

(정기 재정 후원)

-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정기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작은 사무실은 조리실에 딸린 다용도실로 활용하고, 회원모임 공간 일부를 개조하여 사무실과 서류 보관 및 비치와 더불어 회원들을 위한 소모임 공간 및 회의 공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3층에는 법정스님 추모 공간으로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임기 모임 : 매일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사)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일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일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일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일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일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일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일 2,3주 토요일
- 숭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일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감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맏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교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맏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 각 회차(100일)
- 동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매일 20가 구씩 차례대로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2회차 기도가 5월 20일(금) 입재되었으며, 동참하실 분들은 종무소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8월 6일(토) 오후 7~9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입시특강(입시 설명회)

- 일시 : 8월 6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설법전

대입수능 100일기도 입재

- 일시 : 8월 1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8월 3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 기도 안내

- 백중5재 : 8월 3일(수) 오전 9시 50분
- 백중6재 : 8월 10일(수) 오전 9시 50분
- 백중막재 : 8월 17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8월 13일(토) 오후 8시 00분 ~ 8월 14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기도

- 일시 : 8월 20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기도

- 일시 : 8월 26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주말 선 수련회

- 설법전 공사관계로 이번달 주말 선 수련회는 없습니다.

피아노 반주 봉사자 모집

- 매주 일요일 일요법회에서 삼귀의, 사홍서원등 피아노 반주봉사를 하실 신도님을 모집합니다.
- 문의: 길상사 총무소

국공 지원 길상사 환경 개선 공사 안내

템플스테이 사업단 예산 지원을 받아 설법전, 시

민선방 등 6개소의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합니다. 공사중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사 기간 : 7월 15일(금) ~ 9월 30일(금)
- 공사 장소 : 설법전 지하, 시민선방, 적묵당, 정량, 찻집, 도서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사진공양



사진 • 진각

8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천수다라니기도	8월 6일(토)	저녁 7시	극락전
대입수능 100일기도	8월 10일(수)	오후 2시	극락전
초하루법회	8월 3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5재	8월 3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6재	8월 10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막재	8월 17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8월 17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8월 20일(토)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8월 26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8월 13일(토)	저녁 8시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오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소강당

진정한 도반은
내 영혼의 얼굴이다.

내 마음의 소망이 응답한 것.

도반을 위해 나직이 기도할 때
두 영혼은 하나가 된다.

맑고 투명하게
서로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도반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모든 생각과 소원과 기대가
소리없는 기쁨으로 교류된다.

이 때 비로소 눈과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가 된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될 수 있는 한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정스님 『산에는 꽃이 피네』 -

